

슬픈 욕망을 다스리는 명상 미술가 윤석남

윤석남의 작품 앞에 서면 숨이 훅 멎는다. 나무판에 담담한 필치로 그린 그림들인데, 구음처럼 슬픈 멜로디가 들리는 듯도 하고 더운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도 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의 붓을 통해 현현된 것들은 그렇게도 이상한 기운을 품는다. 그 묘한 기운에 붙들린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윤석남의 그것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따뜻한 위로다. 생에 대해, 특히 버려지고 내몰린 하찮은 생, 세상의 마이너리티를 위로하는 진혼곡인 셈이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울어왔던 이에게,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녀의 위로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글 김수미(아트뷰 편집장) photographer 윤석남

마이너리티의 생의 한 가운데에서

누구나 살아가다보면 갑자기 순탄하기만 하던 인생의 길이 뚝 끊겨버리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만 같던 그 길 위에서 발걸음 멈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주저앉아 하염없이 다시 길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주변의 나무동치를 모아다가 건너갈 다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현재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나무동치를 찾아 길을 만드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길이 끊긴 그 곳에서 윤석남은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어느 날 문득 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질문, "지금 난 행복한가? 난 뭐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그 덕분에 사십이 다 된 나이에 비로소 윤석남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스스로 던진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하나씩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 건 붓이었다. 우연히 시작한 서예를 신들린 사람처럼 종일 붙들고 매달려 4년을 한결같이 하루에도 몇 백 장 씩 써내다가 결국 글씨는 그림이 되었고, 그것들은 40년 넘은 해묵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대신해줬다.

"그때 왜 그랬는지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뭔가 가슴에 콕 막혀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정신없이 붓을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보니까 알게 된 거지. 이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게 벌써 30년이다. 마흔 살이 넘어 무명의 데뷔전을 가질 때만해도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느니, 평생 작가로 살아가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그때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이었을 뿐.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절박했다손 치더라도 나이 사십에 새로운 시작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당시 윤석남은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였던 데다가 데뷔 초기부터 아예 여성은 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으니 남성 위주의 견고한 제도권의 국내 화단에서 따뜻한 눈길 한번 던져줬을 리 만무하다.

"주목받지 못하면 당연히 좌절은 되죠.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까짓 감정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시작은 길게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포기가 더 쉬웠겠죠?" 가슴의 열기를 식혀내는 데에 특별히 붓을 든 이유로 윤석남은 "그림은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이 아니라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까"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이 일관된 생각의 줄기는 윤석남에게 옳은 생각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해줬고, 그것은 그의 작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석남은 뜻을 같이하던 화단의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본격적으로 민중미술협의회에서 여성분과를 운영하는 데 앞장섰고, 대안적 여성주의 문화운동이었던 '또 하나의 문화(또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이 두 지류는 윤석남의 정서의 기반을 닦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작가는 외부 자극에도 민

감하게 반응했다. 체계적인 미술 교육의 부재함에 한계를 느끼고 1983년에는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의 그래픽 센터와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1년 정도 수학했는데, 이곳은 유명한 미국 여성미술가들이 거쳐 갔을 만큼 짜임새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평평이 난 곳이었다. 이후 1989년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팽배하던 당시 다시 2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한 뒤로는 평면 작업이 조각과 설치 작업으로 변화했을 만큼 그 영향이 대단히 직접적이었다. 무모할 만큼 과감한 시작이었던 그에게는 오히려 일정한 틀에 갇힌 제도권의 교육보다 열려있는 다방문의 교육이 주는 자극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었다. 스폰지처럼 새로운 감각을 흡수한 윤석남은 1990년대 들어와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종섭미술상, 이듬해는 국무총리상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탄탄한 실천적 이론의 바탕 위에서 단단하게 정신 무장된 윤석남은 아마추어답지 않게 데뷔 초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직시했다. 사회적 약자로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라는 주제로 이어졌고, '어머니'는 윤석남이 1982년 데뷔 후 10여 년 넘게 줄곧 천착하는 주제였다. 낡은 빨래판, 버려진 나무 조각, 나무의 썩은 구멍 등의 별난 재료들은 윤석남이 평생 안고 온 '여성'이란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재료만큼이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 노출된 여성들의 태생적인 불안함, 욕망과 합일되지 못하는 삶 속의 불균형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녀의 '어자들'은 하체가 뚝 잘린 상반신이기 일쑤이고, 한쪽 팔은 기형적으로 늘어서 무엇인가를 애태게 갈구하기도 하고 뿌리처럼 땅을 뚫고 들어갈 기세의 형상이기도 했다. 잘생기지 못한 얼굴들은 평범하다 못해 못생기기까지 했다. 윤석남의 '어머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뛰어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당당하게 그려내는 힘. 감추지 않으면서 날 것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세상의 모든 평범하고 약한 것들을 위로하는 연민의 노래다.

"어머니의 희생은 단순히 불쌍한 것도 아니고 대상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억압되어있던 힘을 발견했고, 그것을 분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난 여전히 마이너리티에 속한 여성입니다. 여성의 가난한 힘으로도 세상을 힘껏 감싸 안았던 그들의 진정성, 그 힘을 찾아내고 싶었고 여전히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건 내게 연민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가 평단에 발을 디딜 때부터 따라다니던 '규수 화가' '주부 화가'라는 별칭은 '강남 살면서 서예로 여가를 즐기던 아줌마'라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일찍부터 혼자된 모친 밑에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3명이나 되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맡아야 했고, 평범한 엔지니어와 결혼한 후에는 방 2개짜리 복지 아파트에서 가난한 살림을 시작했던 터라 책 한 권 살 돈도 없어 어쩌다 구한 책은 6번씩이나 읽었던 기억도 있다.

"하루는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가난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날로 이사를 결심했죠. 영곡동 쪽의 허름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만 오면 질퍽거리어서 장화가 필요한 외진 곳이었죠. 사람들은 다들 학교 좋은 강남을 버리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흉을 봤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형편은 훨씬 나아졌죠. 오래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아주 예쁜 집이에요.” 페미니스트임을 여전히 당당하게 밝히는 그는 “과거에 비하면 (여자들이) 이제는 꽤 살만하지 않나?”라고 되묻는 이들에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성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에게 여성운동은 세상의 악자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젠가 페미니즘이란 말이 사라지는 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나 다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찮은 존재, 버려진 삶에 고향

그의 작품은 곧잘 주술적인 마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무엇보다 작가의 남다른 제작 동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1,025)(11월 9일까지) 작품에서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기건을 소재로 삼은 최근작인데, 이는 2006년에 화제가 된 일흔 노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버려진 개들을 모으다보니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25마리나 되었다는 것.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던 노인의 삶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병들어 아픈 개들의 엄청난 숫자도 기암할 만한 노릇이었지만, 병든 개들에게 꼬여드는 파리 때 때문에 새까맣게 뒤덮인 콘테이너 박스의 형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늙고 병든 자신보다 아픈 개를 돌보는 데 더 열심인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던 윤석남은 3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결국 1,025마리의 개를 완성시켰다. 이는 연민을 초월하는 큰 사랑이었다. 매번 직접 스케치를 해서 담아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같은 모양의 것은 없다.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유기견의 군집 속에 들어서면 황망해진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허둥거리게 된다. 버려진 개들은 하나같이 저들을

바라보는 이의 눈을 똑같이 응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들의 슬픔과 원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1,025)뿐 아니라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 공간을 표현한 <핑크룸>이나 천 개를 이루기에는 한 개가 부족한 여성소형목상 작품 (999)에서처럼 윤석남 작품의 핵심은 서사성에 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예술의 도도함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다. 이야기를 제거해버린 예술지향적 작업에는 흥미조차 없다. “요즘의 동향, 이런 건 나하고 별개죠. 난 지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본 세상의 이야기요. 촌스럽기도 하고 너절할 수도 있지만, 난 그게 좋아요. 보고 느낀 그대로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를 천상 이야기꾼으로 만든 것은 ‘읽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서재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을 읽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어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읽는 일’이다. “화가가 안 되었더라면? 난 아마 책 읽는 사람이 되었을 걸요? 읽는 속도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놀래킬 정도죠. (웃음) 최근 전시 때문에 너무 바빴던 그녀는 오르한 파묵의 <검은책>과 로맹가리의 <하늘의 뿌리> (새벽의 약속)를 재밌게 읽었다. 문고판은



로 나왔던 아놀드 토인비의 <토인비와의 대화>는 그에게 인생의 좌표를 세워준 책이었다.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에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라는 해답을 찾은 순간, 윤석남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삶의 목표를 찾았던 셈이다.

“개 작업을 하기 전과 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도 5kg 나 빠졌죠. 나는 편협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작업들은 매번 날 성장시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난 자라고 있습니다.”

일흔의 그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에 늘 사투를 건 하루를 살기 때문일까. 그와 마주앉아 있다 보면 그가 일흔의 유명한 노장 화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된다. 그저 동네 나이 많은 언니와 마주 앉아서 두런거리며 속내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식이다.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이토록 따뜻한 정서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를 만나 기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어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게 부러 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덕분에 우리는 그를 통해 미술이란 것이 한낱 자신의 욕망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슬픈 욕망을 다스리고 위로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린 딸을 두고 그림에 정신이 팔려서 화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모자라 미국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한다는 자책이 컸죠.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라. 언젠가는 진심으로 이해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최고의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머니가 내게 쏟은 희생의 힘이 내 시대의 반항과 자립의 힘으로 전환되어 이어졌다면, 내 딸에게는 또 다른 힘으로 변화되어 이어지겠죠. 형태는 달라져도 그 내재된 힘은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중한 힘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수원 작업실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꼬박 9시까지 꼼짝 없이 작업하는 버릇을 들인 터라 내년 2월에 있을 전시 준비도 벌써 중력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병들어 죽어간 개들을 장사지내기 위해 이번에 전시된 1,025마리와 함께 ‘49제’를 소재로 한 전시를 기획 중이다. 하찮은 생, 버려진 삶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비단 마이너리티인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보다 넓은 세상과 사람과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이고 연민이다. 그것이 결국 바른 여성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믿는 이 시대 노장 페미니스트의 소리 없는 외침인 것이다.



윤석남 약력

1939 만주 출생	상, 창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제47회 특별전	1997 우리나라의 초상-이해전
학력	2005 화가들이 만난 앙크라 와트, 서울옥션특별전 기념	1996 바젤 아트페어 90년대의 한국미술-等身大의 物語, 제2회 아시아-태평양 현대미술전
1983-84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뉴욕, 미국)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 미국)	2004 집의 숲, 집의 결 바그다드 551km Look & See	1995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특별전 6 Triennale Kleinplastik : Europa - Ostasien
1959 성균관대 영문학 석사	2003 한독 여성 작가전	여성 · 역사 새롭게 보기 혹은 넘어서기, 여성, 그 다름과 힘
개인전	2002 여성사 전시관 개관전 가족展 : 한국현대미술 제 2회 여성미술제	1993 태평양을 넘어서
2004 윤석남전, 열린화랑, 부산	2001 향방불명	1988 여성 해방시대 그림의 만남전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2000 人 + 間 광주비엔날레 2000 새천년 특별기획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Agents of change : 제 12회 시드니 비엔날레	1987 여성과 현실
1998 빛의 파중, 카마쿠라화랑, 카마쿠라	1999 '99 여성미술제 "팔쭈들의 행진" Korea + Jala전 (東北亞와 제3 세계 美術展)	1986 반에서 하나로
1997 빛의 파중, 조선일보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학교재, 서울	이중섭 미술상 10년의 발자취, 역대수상 작가 10인전	수상
1996 윤석남전, 가마쿠라화랑, 가마쿠라 윤석남전, 조현화랑, 부산	2006 여성 일, 미술,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여자를 밝히다, 브랜드를 밝히다	2007 제4회 고정희상
1993 어머니의 눈, 금호미술관	1998 타이페이 비엔날레 영원의 장 한국 현대미술 해외전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기념전	1997 국무총리상
1982 윤석남전, 미술회관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 조선일보사 주최
그룹전		저서
2008 페미니즘 여성작가 3인 초대전 한국여성주의작가 3인 초대전		2005 김승희 윤석남의 여성-이야기 (김승희 지음, 윤석남 그림)
2007 경기, 1번국도		2003 불휘와 생물의 잉카여행 (김혜순 지음, 윤석남 그림)
2006 여성 일, 미술,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여자를 밝히다, 브랜드를 밝히다		